

일본 정부의 기후금융전략 추진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윤 경 수 (yksoo@kdb.co.kr)

- ◆ 일본 정부는 '20.10월 발표한 탄소중립 선언의 실행계획으로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 하였으며, 예산, 세제 등의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주요 14개 분야를 육성할 예정
- ◆ 금융 측면에서는 전환, 녹색, 혁신의 3대 영역에 대한 자금공급 촉진 계획 수립
 - 친환경 혁신기술 보유기업 투자 유도, 전환금융 환경 조성 등이 주요 특징

□ 일본 정부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 선언 후, 그 실행계획으로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

- 일본 정부는 '20.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,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실행계획으로서 '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*' 수립('20.12월)
 - * 녹색성장전략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'산업정책'이라는 점을 강조
 -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성장이 기대되거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필수적인 14개 분야*를 선정 후, 분야별 목표·대응조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5개 정책수단 제시
 - * 해상풍력, 수소, 자동차, 반도체·ICT, 선박, 물류·토목인프라, 식품·농수산, 항공기, 탄소재활용, 주택·건축물 및 태양광, 자원순환 등

'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'의 정책수단 주요 내용

정책수단	주요 내용
예산	- R&D 지원을 위해 NEDO(주)에 향후 10년간 2조엔 규모 녹색혁신기금 조성
세제	- 투자촉진세제 신설, 연구개발세제 확충
금융	- ESG투자 촉진, 기업 정보공개 확대, 정책금융기관 활용
규제개혁·표준화	- 수소 운송기기 표준화, 해상풍력 분야 안전심사 합리화, 자동차 연비규제 검토
국제협력	- 국제규정 제정,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에 있어 양자 및 다자간 협력 추진

주 :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(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)로서, 일본 에너지·환경분야와 산업기술의 개발 촉진 및 보급 등을 담당

자료 : 일본 경제산업성('21.1월), Overview of Japan's Green Growth Strategy Through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2050 등

□ 부처별로는 '기후혁신금융전략 2020' 수립('20.9월), 전환금융 환경조성 TF 발족('21.1월) 등을 통해 탄소중립 관련 산업·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

- 경제산업성(METI)은 '20.9월 발표한 '기후혁신금융전략 2020'에서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목표로 3대 핵심 영역(전환*, 녹색, 혁신)을 설정하고 동 영역 앞 공공·민간자금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부문의 발전 방향을 제시
- * 특히, 일본 산업 구조 고려시 전환 영역에 대한 금융의 역할이 녹색 영역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

- '20.2월 이래 산업, 금융 등 다수 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'환경 혁신금융 연구 그룹'을 발족하였으며, 그룹에서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전략 도출
- 동 전략은 ①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약(지지), ②기업의 적극적 정보 공개(TCFD 등), ③자금공급자의 적극적 참여 등 3가지 기반하에 추진 예정

'기후혁신금융전략 2020'의 핵심 영역과 주요 내용

3개 핵심 영역		금융 부문 현 상황 및 향후 방향
① 전환 (Transition)	현 상황	- 녹색금융과 비교시 전환금융 지원은 시작 단계이며, 국제자본시장협회(ICMA) 등 국제기구에서 전환금융 개념 논의 진행 중
	방향	- 국제적 원칙에 기초한 일본내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개발 - 전환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식별하고,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대출 및 채권 발행의 조건, 형태 등을 정립
② 녹색 (Green)	현 상황	- 일본 녹색금융 규모 큰 폭 성장세 시현 (일본 녹색채권 발행액 : '14년 338억엔 → '19년 8,238억엔)
	방향	- 경쟁력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성장산업 육성에 소요되는 자금공급을 위해 향후에도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
③ 혁신 (Innovation)	현 상황	- 장기 투자기간·수익성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혁신기술 투자가 어렵고, 리스크머니 유입도 저조. 기업과 금융기관간 커뮤니케이션도 부족
	방향	- Zero Emission Challenge ^주 지속 집행 - 혁신펀드(일본투자공사 산하) 조성을 통해 리스크머니 공급 추진

주 : 경제단체연합회 및 NEDO와의 협력을 통해 39개 기술 테마별로 환경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목록을 작성·공표하여 국내외 투자자 앞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
 자료 : 일본 경제산업성(20.9월), Climate Innovation Financial Strategy 2020

- 경제산업성(METI), 금융청(FSA), 환경부(MOE)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전환금융* 제공 촉진 목적의 '전환금융 환경 조성 Task-Force' 발족('21.1월)
 - * 기후금융의 한 부분으로서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 및 기업의 탄소저감(내지 탄소중립)을 위한 전환 활동을 지원하는 금융
- 동 TF는 국제자본시장협회(ICMA)의 기후 전환금융 지침을 고려하여 전환채권*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시 사용될 자국내 기본 원칙을 제정할 예정
 - * 고탄소배출 기업이 탄소배출 감소를 목표로 발행하는 채권으로, 조달 자금의 사용처가 녹색 사업에 국한되지는 않으나, 발행 기업들에게 친환경기업으로의 변화 의무가 부과
- 전환금융의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전파하는 한편, 전환자금 조달시 제3의 평가 기관 검토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

□ **친환경 혁신기술 보유기업 육성과 함께 고탄소 산업의 성공적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을 강조하는 점이 일본 사례의 주요 특징**

-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전문가 집단과 정부 부처간 및 정부·산업·금융업계간 협력 등을 적극 활용